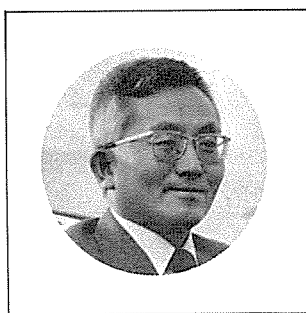


세계최초 木版·金屬활자 印刷術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 교수 · 科學史)

지난 연말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우리의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보존 처리되었다. 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인쇄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화학처리를 가하여 조각 조각 부스러져 갈뻔한 이 국보를 건강한 유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아마國立博物館은 이제 원본을 전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경을 12장의 목판으로 인쇄해서 이어 놓은 이 유물은 6.5cm의 아주 작은 폭에 길이는 거의 7m나 되는 우리 민족

문화의 큰 자랑거리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제3의 물결」이나 「정보화 혁명」이니 하면서 새시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요즘은 우리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情報革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금속활자인쇄술의 발명자이면서 동시에 그보다 수백년 앞서서는 목판인쇄술의 발명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다라니경이 보여주기에 때문이다.

인쇄술이라면 우선 木版印刷가 처음이다. 그다음 활자인쇄

특히 금속활자인쇄가 결정적으로 인류의 정보혁명을 주도했던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인쇄술 모두를 한국인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을 이 다라니경은 알려 주고 있다. 비록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혁명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머지 않아 새로운 정보혁명에서도 우리는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도 같다. 그런 자신감은 우리들의 찬란한 印刷文化의 전통을 되새길 때 더욱 확실해 진다.

‘다라니’란 말은 산스크리트 말로 기도문 또는 呪文을 뜻한다. 경주 불국사를 짓고 그 앞에 세운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우면서 신라 사람들은 액운을 없애고 복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다라니경을 인쇄해서 석가탑 안에 사리와 함께 넣어 두었던 것이다. 특히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란 뜻으로 無影塔으로도 널리 알려진 애뜻한 사랑의 전설이 깃든 탑이기도 하다.

바로 그 석가탑 안에 숨겨있던 두루마리 다라니경이 1966년 10월 31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괴상한 일이지만 그 전에 도둑이 밤 사이에 탑을 건드리다가 아마 장비 부족으로 사리함을 훔치지 못한 채 날이 새어 달아나고 말았다. 잘못 건드려 제자리에서 벗어난 탑의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한 공사가 그날 실시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공사중에 받

침대로 썼던 기둥이 부러지는 바람에 탑의 옥개석 하나가 땅에 떨어져 한 귀퉁이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소동 가운데 탑신을 한 부분씩 내려놓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리함파 그와 함께 넣어 두었던 인쇄된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이었다. 앞에 소개했듯이 이 두루마리는 12장의 목판인쇄물을 이어 놓은 것인데 한장마다 55행 내지 63행씩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한행에 들어간 글자수는 7자에서 9자까지였다. 지금은 작고 한 사학자 이홍직·김삼기교수등이 현장에 달려가 이 인쇄물을 감정한 결과 그 글자 가운데 則天武后시대에 새로 만들어 그 뒤 얼마 동안만 사용되었던 한자들이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이 인쇄물이 측천무후가 제위에 있던 684~704년 이후의 연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석가탑은 751년에 건립되었으니까 이 다라니경은 그보다는 먼저 만들어졌을 것으로 확실해 보였다.

그 뒤 이 다라니경이 만들어진 年代에 대해 민영규·김두중·손보기·전상운교수등이 의견을 말했고, 대체로 의견은 706~751년 사이를 오르내린다. 이 연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다라니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유물로는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이 꼽히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다라니경은 770년경 만든 것이

라 확인되어 있다. 우리의 것이 적어도 20년은 앞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木版印刷遺物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다라니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든 이유가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은 악한 귀신, 특히 천연두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역시 비슷한 目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그 옛날의 목판인쇄물이란 지금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어서 질병을 물리

**백만탑 다라니경에 앞선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치거나 외적의 침략으로 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목판인쇄물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팔만 대장경>이 역시 부처님의 힘을 빌어 글안족의 침입을 물리쳐 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거의 25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몽고족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정성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을 상기시켜 준다.

新羅때의 다라니경 이후 신라의 목판인쇄유물로 더 전해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1021(고려 현종 12)년 이후 고려

사람들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 글안의 침략을 물리친다고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이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 6천권이였다. 그 뒤에도 몇차례 불경을 목판에 새기는 작업은 계속되었고, 대각국사 義天은 속장경이란 걸 준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정성을 담아 만든 대장경판은 1232(고종 19)년,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말았다. 경판 1만장 이상이 불에 탔다니까 그 후에 얼마가 남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지금 海印寺에 보관된 대장경판 가운데에는 이 때의 남은 경판도 들어있을 법하다. 몽고의 침략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었던지는 짐작할 만한 일이다. 몽고족을 피해 서울을 강화도로 옮겨 항쟁을 계속한 高麗 사람들은 부처님의 힘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정성이 그들을 16년동안 8만 1천권 이상의 불경 경판을 새겨 놓게 만든 것이다.

순전히 技術的인 면에서 보자면 한장을 만드나 여러장을 만드나 그 기술상의 성취도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의미에서는 8세기 초의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인쇄는 그대로 지속되어 13세기의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되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해인사에 가서 실제로 거기에 보관된 대장경판을 본 사람들은 그 규모의 크기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책의 출판이 어렵지 않은 지금 보아도 그 규모란 대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에는 한장에 양면 모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면에 들어 있는 글자수는 322자씩이다. 지금 이걸 책으로 찍어 낸다면 크기가 아주 큰 책이 될텐데, 이걸 모두 한번씩 찍는다면 4페이지를 8만장 찍는 셈이니 모두 32만페이지가 된다. 1천페이지씩 아주 두껍게 만든다 해도 모두 320권의 책이 될 판이다.

이들 목판 한장은 가로 65cm, 세로 24cm, 두께 4cm이며, 무게는 3kg쯤 되는 큼직한 모양의 것이다. 이 목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 울릉도, 거제도, 완도 등에서 까지 후박나무등을 몇년동안 바다물에 담갔다 꺼내 이를 소금물에 찌서 진을 뺀 다음 그늘에서 몇 해 동안 천천히 말려 사용했다니 그 정성을 짐작할만 한 일이다.

8만대장경을 보관해 놓은 2동의 版庫 또한 대단히 과학적으로 건조되어 있다. 판고의 앞과 뒤에는 바람이 잘 통하게 창문이 알맞게 달려 있고, 판목을 차례로 끼워만 주면 그 사이가 알맞게 떠서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차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세계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목판인쇄물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목판인쇄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발달돼 나온 것이 금속활자 인쇄술이었다. 너무 유명한 일이지만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인쇄술을 발명한 민족이다. 기록에 따르면 금속활자인쇄로 처음 만들어진 책은 1234년 쯤의 것으로 「詳定禮文」이란 제목이었다. 그 유물은 지금 남아 있지 않지만, 그 대신 1377년에 간행된 「直指心經」은 파리에 남아 있다. 또 朝鮮時代로 들어와서는 癸未字,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경오자 등등 1403년부터 잇달아 만들어진 여러가지 활자들이 그것으로 만든 책들

서양보다 2세기 앞서 금속활자 발명

과 함께 남아 있다.

금속활자인쇄술로 말하자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그걸 이용하여 성공하기 반세기전에 조선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달했으며, 그 발달의 초기를 비교하자면 서양보다 2세기를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활자 인쇄술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섰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공인된 일이다. 훌륭한 종을 만들어 낼줄 알던 그 솜씨가 아마 금속활자를 만드는 데에도 응용되었을 터이다.

西洋歷史에서는 인쇄술의 발달, 그 가운데에도 특히 활자 인쇄술의 발달은 대단히 중요

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면 활자인쇄술이 발명된 다음 50년 사이에 나온 책의 수가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책의 수를 능가할 정도였다. 당시로 보자면 가히 “정보의 홍수”를 경험했다고나 할까? 종교 개혁이라는 서양사상의 대사건도 구텐베르크 없이는 불가능했다.

인쇄술의 발달로 가장 널리 보급된 책은 당연히 기독교의聖經이었고, 성경의 보급은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 의견을 낳기 시작했다. 게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긴 수많은 지식층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문을 쓰던 우리 문명은 서양에서와 같은 극적인 전환을 경험할 수 없었다. 활자인쇄로 서양에서는 책이 값싸게 널리 보급되고, 또 아무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지만, 어려운 한자를 쓰는 상황속에서는 책을 읽을 정도의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한글을 당시부터 일찍 널리 사용했다라면 우리는 朝鮮초췌까지에는 대단한 정보혁명을 겪었을 법도 하다.

석가탑의 다라니경을 보존처리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처음 목판인쇄를 시작하여 최초의 금속활자인쇄까지 이룩했다는 정보혁신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다. 앞으로 닥아오는 21세기의 정보혁명에도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